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CGNTV

M A G A Z I N E | Winter 2016_Vol.15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徐錫平

우리가 믿어 왔던 사회통념과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때
상식이 실종되고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 더 의지하고 위로를 얻는 것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시 130:7).
CGNTV의 존재이유입니다.

정의를 잃는 것 같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때일수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보석 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둠의 터널을 헤쳐 나가며
갈림길에서 빛을 향해 방향을 튼니다.
CGNTV의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말씀이 온누리에 충만해서 어둠의 영이 설 땅이 없는 그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CGNTV는 그날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 이용경 CGNTV 대표

C O N T E N T S

Winter 2016_Vol.15

여는 글 이용경 CGNTV 대표

포토에세이 사진작가 신미식

I. Special

- 04 제작 스토리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 08 인터뷰 선교사 스탠 토플 외
한국에 헌신했던 사람들
- 12 CGN 포커스 일본 CGNTV
10주년의 은혜와 열매

II.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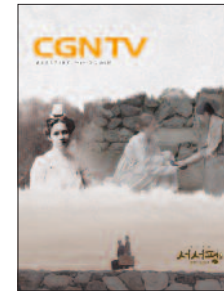
- 14 나침반 바이블 강아름PD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 16 Inside Out
KNOCK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

III. People

- 18 큐티 간증수기 최우수상 수상자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다
- 20 선교지의 아침 우간다 김신환 선교사
우간다를 밝힐 불씨

IV. CGN 소식

- 22 CGN 뉴스 국내, 해외
- 28 시청소감 윤정희 사모의 감사편지
- 30 요일별 편성표
- 32 후원안내
- 33 감사의 글 유재건 장로(CGNTV 3대 대표)
내가 바라고 원하는 CGNTV



COVER STORY

진심으로 조선을 사랑하고
온몸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서서평 선교사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6년 12월 23일(통권 제 15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용경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현이영, 어대준, 김란,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어대준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선물

라오스로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담기 위해
큰 여행 가방 하나를 준비했다.
사실 이 가방은 동네에 버려졌던 것인데
디자인과 상태가 좋아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가족사진 촬영을 마친 마지막 날, 가방을 그곳의 한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다.
우리에게 버려지는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귀한 살림 도구였다.
그녀는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문득 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이 그녀에게 가방을 주고 싶었던 이유였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녀의 편안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다.
돌아오는 길, 몸도 마음도 가벼웠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일행의 차가 떠날 때까지 등 뒤에 서서 계속 인사를 전했다.
진심이 전달되는 데는 꼭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 듯하다.
소중한 인연이 또 한 번 나를 성장시켰다.

신미식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람을 배운다>, <에티오피아, 천국의 땅>외 다수



다큐영화

서서평

徐舒平

천천히 평온하게

내레이션 : 배우 하정우

CGNTV 제작,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

잊혀 가는 시간 속, 조선을 비춘
선교사 '서서평(徐舒平)' 을 만나다.

“서서평 선교사는 그 어떤 선교사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곁에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CGNTV가 첫 자체 제작 다큐영화를 선보인다. 선교사 '서서평'을 조명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이하 '서서평') 이다. CGNTV의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 세 번째 작품. CGNTV는 작품의 울림 있는 메시지를 보다 폭넓은 관객들과 나누고자 새로운 장르적 도전을 감행했다. 독일 비스바덴과 뉴욕,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까지 1년의 제작기간을 거쳐 4K 촬영으로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생생하게 담았다. 작품은 오는 2017년 봄, 극장 개봉을 준비하며 성탄 전날인 12월 24일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상영한다. 새롭게 마주할 감동을 기다리며 다큐영화 <서서평>의 제작기를 들여다 봤다.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

CGNTV의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는 그동안 한국 선교 역사 속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사들에 주목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한국의 가난한 영혼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역사 속 그들. 많은 조선인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선교사 서서평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서평(舒平), 천천히 평온하게

서서평(본명 엘리자베스 웨핑, 1880~1934) 선교사는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간호교육을 마치고 32세에 조선에 왔다. 독신의 몸으로 고아 14명을 입양해 길렀고 많은 과부들을 돌봤다.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 이일학교를 세워 과부와 버려진 소녀들을 구제해 교육했고, 나환자와 결인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극진히 살폈다. 그녀는 54세에 스프루와 영양 실조로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도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증했다.

긴 자료 조사

<서서평>은 제작 기간 1년 프로젝트였다. 올 초 제작에 착수한 뒤 상반기 동안 자료 조사에 많은 공을 들였다. 서서평 선교사는 그녀의 수많은 행적에 비해 남아 있는 기록이 많지 않았다. 일생 홀몸이었던 그녀에겐 후손도 없었고, 기록에 남아있는 가족 들도 쉽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그녀가 함께 했던 이들은 이미 새 생명의 밑거름이 됐을 터였다.

성장배경

제작진은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까지 돌며 그녀의 흔적들을 취재했다. 서서평 선교사는 그녀의 사역만으로도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많은 자료를 찾던 중, 서서평 선교사의 성장배경에 눈이 갔다. 낯선 땅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의 어머니였던 그녀가 정작 자신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온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제작팀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자랐던 그녀가 예수를 만난 뒤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선교로 승화됐는지 주목하기로 했다. 서 선교사는 “예수를 만난 후, 내 삶이 환희로 바뀌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재연 드라마

이에 재연 드라마는 <서서평>에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 고증자료가 부족한 이유도 있었지만, 드라마는 그녀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틀이었다. 드라마가 될 부분은 서서평 선교사가 동료였던 스와인하트 선교사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은 대목이었다. 스와인하트 선교사는 훗날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도 했다. 제작진은 드라마를 통해 서평의 가슴 속 아픔과 고민을 그려갔다.

연기자 만나

재연 드라마는 지난 8월 별도의 제작진을 추가해 주요 배역들을 찾는 것부터 시작됐다. 서서평 선교사를 맡

을 배우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제작팀은 서평 역의 배우가 독일어와 영어가 동시에 가능하고 영어에 독일어 억양이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 선교사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크리스천이길 원했다. 제작진은 서평을 찾기 위해 국내 매니지먼트들은 물론 교회별 외국인 예배까지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안나를 만났다. 그녀는 크리스천이자 영어를 잘하는 독일인이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연기자였다. 참신한 이미지였고 연기도 잘했다.

서평이 된 안나

안나는 <서서평>에 합류한 뒤, 제작진에게 한 가지 일화를 나눴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종종 “왜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외국인 며느리 정도일 거다”라고 말했다. 한참 속상해했던 안나에게 독일에 계신 그녀의 어머니가 해 준 말이 있다. “안나, 한국은 외국인 선교사가 많이 들어가 좋은 일을 많이 한 곳인데 만약 그들의 이야기가 영화화 된다면 네가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거야”라고. 안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작진은 이 만남이 우연만은 아닌 듯싶었다.

촬영

본격적인 재연 드라마 촬영이 시작됐다. <서서평>은 시대극이라 촬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미술 비용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제작팀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 수밖에 없었다. 국내 남도 일대의 근대 건축물은 안가본 곳이 없었다. 재연 촬영을 위한 일정은 함평, 광주, 전주, 다시 광주, 함평, 대전, 익산을 도는 4일, 제주에서 진행되는 이틀이었다. 하지만 내륙 촬영 첫날 태풍이 왔다. 촬영 예정이었던 부동교가 물에 잠겨 난감한 상황이었다. 결국 이 촬영은 촬영 쉬는 날을 할애해 마쳤다. 제주원 복도, 해부실, 서평의 집에 필요했던 조선인 역할은 서서평 선교사가 다녔던 광주 제일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출연해주었다.

스태프들

제주촬영도 만만치는 않았다. 촬영지였던 김녕 해수욕장이 태풍의 영향으로 쓰레기에 뒤덮여 있었다. 이곳은



다는 서평의 대사에 걸맞는 곳이 돼 있었다. 스태프들은 2차에 걸쳐 끝내 청소를 마쳤고 시간이 지나 물이 들어올 때는 직접 모래를 퍼다 해안을 만들었다.

기도

<서서평>의 매 촬영은 기도로 시작됐다. 긴 시간 촬영이 진행되다 보면 제작진 간에 서로 예민해지거나 부딪칠 경우도 있는데 시작 기도는 늘 팀을 하나로 만들었다. 재연 마지막 촬영이 있었던 제주에선 주인공인 안나가 시작 기도를 했다. 안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힘 있게 외웠다. 함께 기도하던 팀원들은 마치 서서평 선교사가 살아온 느낌이 들었다. 또 이 작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그녀의 고백에 큰 은혜를 받았다.

다큐영화

CGNTV에서 처음 시도하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2017년 봄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배우 하정우 씨의 내레이션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다큐와 재연을 한데 묶으며 음악, CG, 색보정 등 영화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제작진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제작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었다.

드림온 콘서트에서 다시 만난, 한국에 헌신했던 사람들

스탠 토플, 미아 토플, 시슬 토플, 제임스 린튼 선교사



한국 선교에 헌신했던 네 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지난 11월 또 다시 한국을 찾았다. CGNTV 드림온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드림온 콘서트는 매년 CGNTV를 후원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 CGNTV 방송 선교 사역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자리다. 내한한 네 사람은 2015년 제작된 CGNTV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에 소개됐던 선교사들로, 스탠 토플 선교사와 그의 아내 미아 토플, 딸 시슬 토플 그리고 휴 린튼 선교사의 아들 제임스 린튼 선교사다.

네 사람은 한국의 1950년, 60년대를 지켜 본 한국 선교의 산증인들이다. 다시 찾은 한국을 보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행성, 지구상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다”는 그들. 선교가 시대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네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함께 한 사람들에게 선교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었다. 그들은 CGNTV 방송 선교를 후원하는 이들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였다.

“토플 원장님은 환자들을 사랑했어요.”

스탠 토플 선교사는 1959년 27세 청년의 몸으로 한국에 들어와, 한센병 환자 치료소 애양원의 10대 원장을 지냈다. 1981년까지 22년 간 한센병 환자, 소외된 한국인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몸과 맘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 아픔이 컸다. 그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까지 주변인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시대였다. 한센병으로 사망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간혹 한센인 가족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치료책이 없었던 막막한 현실과 무지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편견 때문이었다.

토플 선교사는 사역을 하는 동안 약을 제공하고 환자들을 수술하는 일들에 힘쓰며 동료와 환자 천여 명을 돌봤다. 그가 더욱 주력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한센병은 접촉성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육체적 고통 속에 억눌린 그들에게 복음을 통한 새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는 진찰실 옆에 항상 전도지를 두었다. 환자에게 제일 먼저 묻는 말도 “예수 믿으십니까?”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한센병 환자들은 서서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당시를 추억하는 토플은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됐다”며 “뚝뚝하고 쾌활한 분들이 많았고 때론 병 때문에 성치 않은 자신들의 외모를 놓고 서로 짓궂은 별명을 부르며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병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사역에 더욱 보람과 감사를 느꼈다”고 했다.

“저는 선교사의 삶이 만족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삶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만족스러웠다. 또 그의 가장 좋은 파트너였던 아내 미아 토플 선교사가 함께 했기에 더욱 힘이 날 수 있었다. 피부과 의사였던 미아 토플 선교사는 누구보다 환자들을 많이 돌봤다. 한센병 초기 환자들은 스스로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몰라 가장 먼저 피부과를 찾았다. 피부과 의사인 미아 토플과 정형외과 의사인 스탠 토플은 마치 빼와 살처럼 누구보다 이 사역에 꼭 맞는 파트너였다.

그들은 완치된 한센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스탠 토플 선교사의 한국 이름 도성래를 차용한 도성 마을을 조성했다. 또 1968년 애양병원을 완공해 한센병 환자들을 일반인들과 함께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1년 한국에서의 20여 년 사역을 마감하고 더 햇볕은 땅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로 향했다. 그들은 그 뒤 아프리카에서도 20여 년간 더 의료 선교 사역에 헌신했다.

그들은 지금도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즐겨 먹을 만큼 한국을 그리워한다. “한국도 했는데 너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었다. 그들은 처참했던 어려움을 딛고 50여 년 새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이 지금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의 한국사랑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다. 드림은 콘서트에 동행한 딸 시슬 토플 선교사는 현재 CFK(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를 통해 북한 선교에 힘쓰고 있다. 휴 린튼 선교사의 아들인 제임스 린튼 선교사도 마찬가지다. CFK는 린튼 선교사가문이 설립한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B형 간염과 결핵환자 치료, 식수 및 식량 공급, 식량 생산 지원, 의료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 북한을 보면, 제가 자란 동네가 떠올라요.”

시슬 토플 선교사는 오늘날 북한을 보며 자신이 성장했던 남한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성장한 그녀는 미국의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그녀는 “영어는 어른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추억할 만큼 한국의 토양에서 자란 것이다. 이는 제임스 린튼 선교사도 그랬다.

린튼 가는 1895년 처음 한국에 들어와 4대째 한국 선교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가문이다. 1954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제임스 린튼 선교사는 줄곧 아버지의 사역을 지켜보며 자랐다.

그의 아버지인 휴 린튼 선교사는 1963년 전라남도 순천에 결핵 진료소, 1965년 결핵 요양소를 건립하며 한국의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고무신 선교사로도 유명했다. 건축학을 전공한 휴 린튼 선교사는 환자들 집까지 손수 지어주었고, 한국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사역을 기뻐하고 행복해 했다. 그는 10여 년간 한국에 3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함께 일해야 합니다.”

제임스 린튼 선교사는 “선교사는 리더가 아니고, 촉매라고 아버지께 배웠다”며 “아버지는 앞서기보다 많은 일들을 한국인들과 협의하셨다”고 했다. 그의 북한 사역도 아버지의 그 가르침이 밑거름이 됐다. 또한 이번 드림은 콘서트 참석도 그 가르침, “함께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북한 사역이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듯이 CGNTV도 한 뜻을 가진, 한 형제인 우리

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을 촬영하면서 처음 CGNTV와 접촉하게 됐다. 그는 이미 다른 방송들이 유사한 촬영을 위해 왔었던 터라 촬영 전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다. 이전 단체들이 모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린튼 선교사는 <블랙마운틴> 촬영 전 CGNTV에 많은 조건을 걸었다. CGNTV는 그 조건을 성실하게 지켰고, 그런 제작진을 보며 그는 이내 마음이 열렸다. 결과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했다.

한국을 섬겼던 미국인 은퇴 선교사들을 찾았던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은 방송 후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국내 교회와 단체 및 미국 17개 교회에서 상영됐다.

이 일을 계기로 제임스 린튼 선교사는 CGNTV와 친구가 됐다. 또 사역을 지켜보며 선교사 자녀이기도 했던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다. 그는 드림은 콘서트 무대에서 “선교사 자녀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고국과 떨어져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며 “CGNTV의 역할이 크다”고 전했다. 또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바람도 비쳤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돌아보게 된 스탠 토플 선교사는 현 한국 선교사들의 열정을 높이 사며,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는 민족들은 그 어떤 일보다 축복”이라고 했다. 제임스 린튼 선교사는 드림은 콘서트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에게 “영국에 ‘경기에 이길 말에 걸러라’는 속담이 있

는데, CGNTV가 주님의 그 경주마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전했다.

“한 가정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토플 부부. 한 시대, 선교에 온 열정을 쏟았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않는 시대에 CGNTV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한 영혼의 안방까지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드림은 콘서트의 테마는 ‘드림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모 그리고 동료 선교사와 함께 콘서트 무대에 올랐던 시슬 토플 선교사는 “오늘 밤 CGNTV를 바라보며 우리가 붙든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미소 지으며 확신했다.



‘일본선교’에서 ‘선교일본’으로

일본 CGNTV가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일본 땅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10년이 된 것이다. 일본 CGNTV는 2006년 동경과 2007년 오사카에 터를 잡고 일본 선교를 위해 첫 발걸음을 뒀다. 오직 복음 전파의 열정이 이끈 믿음의 출발이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복음의 불모지다. 일본 CGNTV는 그 땅을 기경하는 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어느 시점부터 씨를 뿌리고 모종도 심어나갔다. 그 사이 일본 CGNTV는 일본 복음화의 크고 작은 희망들을 보며, 보석 같은 결실들도 맺었다. ‘일본 CGNTV 개국 10주년’, 은혜로 가꿔진 아름다운 10년이였다.



1. 복음의 불모지를 기경하다.

연합과 협력 » 일본 CGNTV의 사역은 연합과 협력에서 출발했다. 일본 47개 현 지역 교회들과 일본 복음화를 위해 초교파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 등 각 지역 목회자 1600여 명이 일본 CGNTV의 <10분 메시지>를 위해 출연했다. 2천여 개의 지역교회들이 대규모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운영에 적극 협력했다. ‘GMS’, ‘일본동맹교단’, ‘NGO월드휴먼브릿지’ 등 교단과 단체를 망라한 200여 명의 선교사들도 일본 CGNTV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변화와 성장 » 일본 CGNTV의 이러한 네트워크는 일본 교회들 간의 초교파적 연합에도 단초가 됐다. 일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장벽을 허물어가며 협력을 시작한 것이다. 또 일본 전역의 목회자들이 고르게 CGNTV에 출연하면서 각 교회들이 서로 다양한 영적 양식을 교류할 수 있게 됐다. 방송을 준비하는 목회자들도 복음의 메신저로서 더욱 성장하게 됐고 이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으로도 이어졌다.

2. 일본 복음화의 꿈을 심다.

무목교회 지원 » 일본 CGNTV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교회가 일본 CGNTV에 가장 기대하는 사역은 무목교회 지원이었다. 일본은 전국 8000여 개의 교회 중 700여 곳이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다. 일본 CGNTV는 2007년 3월 홋카이도 토미카와의 무목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 곳이 넘는 무목교회와 가정교회에 CGNTV 안테나를 지원, 구성원들의 예배와 영적 성장을 도왔다. 특히 대다수의 교회들이 CGNTV를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일본 CGNTV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더욱 주일 예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차세대(청소년/어린이) » 일본 교회는 전체 교회의 50%가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일본 CGNTV는 일본 복음화의 내일을 위해 차세대들의 성장에 보다 집중했다. 매년 1회 청소년 전도 집회 <유아스페셜 전도 콘서트>, <키즈 페스티벌> 등을 지역 차세대 목회자들과 협력해 개최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지원하고 어린이들의 교육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아가페CGN » 아가페CGN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설립된 비영리단체 사역이다. 재난 현장에 대한 실시간 소식통이 돼 전국 각 처의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피해 복구 사역에도 적극 동참한다. 지난 2016년 4월 구마모토 대지진 발생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현지에 보도본부를 세워 한국과 일본에 실시간 뉴스를 전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많은 자원봉사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를 위한 본사 아웃리치 팀도 파견됐다. 또 기도 요청 영상이 일본 CGNTV 페이스북 북에 오픈 돼 조회 수 65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일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3. 일본 땅의 친구가 되다.

은혜의 고백들 » 일본 CGNTV 사역은 몸 된 교회의 지체들처럼 일본 지역 교회 목회자, 후원자, 시청자들이 연합해 더욱 선을 이뤄갔다.

▶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과 복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합니다.”(아라카와 마사오 목사, <10분 메시지> 군마 출연) ▶ “방송 한 편 한 편에 은혜를 담았고 그것은 제 설교에 귀한 밑거름이 됐습니다.”(고와 세 이사무 목사, <10분 메시지> 군마 출연) ▶ “일본어로 방송돼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느껴집니다.”(하시모토 미사코, Dancing Generation 출연) ▶ “CGNTV를 통해 후쿠오카 작은 시골에 살면서도 내가 일본 전국 그리고 세계와 연결돼 있다는 세계관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마츠오 나미코, 시청자) ▶ “CGNTV는 제 인생의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츠지 다카히로, 시청자)

4. 다가올 10년을 꿈꾸다.

세대·영역·지역 » 일본 CGNTV의 향후 10년의 비전은 “일본선교에서 선교일본으로”다. 지난 10년의 은혜를 원동력으로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세대’, ‘영역’, ‘지역’, 세 부분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년 대상의 프로그램에서 차세대와 70대 이상 고령층까지 전 세대의 영적 성장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보다 힘쓸 것이다. 또 교계 중심의 사역에서 사회 각 계각층으로 시선을 넓힐 것이다. 재난지역,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문화계 등과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열도 중심의 네트워크를 해외 다른 나라까지 확대할 것이다. 일본 디아스포라, 해외 일본인 교회, 해외 일본인 선교사들과도 손을 잡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또 한 발을 내딛을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CGNTV <나침반 바이블> 강아름 PD

CGNTV에서는 선교지를 향한 저마다의 꿈들이 자란다.
이 울타리에선 모두 한 곳, 선교지의 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신실함이 무기인 CGNTV의 사람들이다.



“매일 오전 11시는 저의 공부 시간입니다. 인생의 좌표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CGNTV 한 애청자의 말이다. 평일 오전 11시는 맞춤특강 <나침반>과 <나침반 바이블>이 집중 편성된 시간이다. 월, 화, 금요일엔 <나침반>, 수, 목요일엔 <나침반 바이블>. 분야별 전문가들의 엄선된 강의가 평일, 같은 시간대 어김없이 문을 연다. 수많은 불특정 시청자를 초대한 시간. <나침반 바이블> 강아름 PD가 이 시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나침반 바이블>은 참신한 주제들을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게 배워보는 시간이다. 맞춤특강 <나침반>의 시청자 층이 확대되면서 올해 초 <나침반>을 보다 세분화, 전문화 해 마련한 콘텐츠다. 총 8~12개의 강의가 큰 주제 아래 매회 새롭게 시리즈로 구성됐다. 강사에게 집중된 연출로 강의의 집중도도 높였다.

현재까지 ‘일과 영성’, ‘참 믿음의 여정’, ‘요한이 말하는 예수’, ‘율법과 복음’, ‘광야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의 100여 편의 강의가 펼쳐졌다. 한 해를 마무리하



며 연말 공개 특강도 진행했다. ‘말씀, 그리고 삶’을 주제로 강영안 고신대 이사장과 백소영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의 강의는 12월 21~22일, 28~29일, 2주간 방송된다.

강아름 PD는 이렇듯 매주 2회 선보이는 말씀의 성찬을 준비하며 지난 1년 바쁘게 달려왔다. 2017년 문을 열 라인업도 준비된 상태다. 2017년 문을 열 강의는 성경의 친구약 첫 책인 <창세기(수요일)>, <마태복음(목요일)>이다. 강 PD는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보다 말씀의 본연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한다.

<나침반 바이블>은 한 사람의 강연자가 꾸미는 무대다. 하지만 성경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제작에 별도의 공정이 들어간다. 아이템을 찾기 위해 제작진은 여느 프로그램들처럼 다양한 강연들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저서들도 읽지만, 강의의 주제가 잡히면 강 PD는 먼저 관련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출연자 선정에도 무엇보다 신중을 기한다. 강사에 관련된 강연 및 저서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반영해 몇 번의 출연자 확인 절차를 거친다. 또 시청자들이 성경 말씀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사들과 매 편 세세하게 협의한다. 더불어 수, 목 각 강의에 다양성을 피하기 위해 강사들의 성향과 성경 본문을 적절하게 나눠 배치하기도 한다.

정성어린 공정만큼 지난 1년 동안 선보인 <나침반 바

이블>은 고정 시청자들이 확대되며 CGNTV의 새로운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연말 특집 공개 강연에서는 전남 광양에 사는 시청자가 강연을 듣기 위해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방청 후 제작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지난 3월 진행됐던 첫 강연자 김남준 목사의 저서 친필 사인 이벤트도 첫 시리즈 강연 후 2개월 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소감을 보내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현재 방송 중인 FWIA(Faith&Work Institute Asia) 김윤희 대표의 <일과 영성> 강의도 CGNTV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젊은 층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일과 영성>은 일에 대한 생각부터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해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아름 PD는 지난 2009년 영혼을 살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각오로 CGNTV에 입사해 <스케치북>, <이홍렬의 편편한 북카페>, <창조과학탐사아웃리치 다큐>, <독수리5형제>, <SALT&LIGHT>, <맞춤특강 나침반>,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등 국내외 선교지를 소개하고 신앙성장을 돕는 유익한 정보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왔다.



강아름 PD는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며 “CGNTV는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해준 곳”이라고 했다.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 매주 공들여 말씀을 준비하는 그녀는 이미 방송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웹&모바일 시청자들의 마음을 두드린 화제의 영상을 만나봅니다.

KNOCK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

Inside 제작진에게 듣는다!

#1. 미니콤이란.

미니 시트콤의 줄임말이다. 줄임말이 주목받는 시대, KNOCK가 시트콤이라는 새 장르를 개시하면서 작품과 어울리는 장르적 수식어를 붙여봤다. 수식에 걸맞게 러닝타임 4분 30여 초 동안 톡톡 튀는 공감 에피소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2. 작품 소개.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상큼 발랄한 에피소드 총 4편이 소개된다. 많은 청년들이 때론 신앙을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맞는다. 대표적인 순간이 '결혼과 연애'의 순간이다. 신실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상대가 눈앞에 나타난다. 크리스천이니 상대방의 외모, 스펙 등은 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갈등이다. 막상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예단, 혼수 문제가 만만치 않다. <두근두

근 마카롱>은 공감 가는 에피소드들을 통해 웃음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3. 에피소드 소개.

1화 <작전명:상견례> 10년 연애크플인 한나와 현범.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그 첫 관문인 상견례가 시작됐다. 그들의 스타트는 생각만큼은 헤로울 수 있을까.

2화 <HAPPY MIRACLE DAY> 신실한 교회 남자는 매력이 없고, 매력이 있는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니고. 고민에 빠진 가희의 눈앞에 잘생긴 안 믿는 형제인 민이 나타난다.

3화 <신 시택학개론> 드디어 결혼에 골인한 한나와 현범. 한나에게 드디어 '시택', '시어머니'가 생겼다. 시월드를 경험하는 한나의 우여곡절 신혼 이야기.

4화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 민은 가희의 간곡한 부탁에 처음 교회에 나간다. 하지만 오직 숙면 모드. 그들에게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찾아올까.

#4. 출연진 & 업로드.

<두근두근 마카롱>의 두 커플은 '임재민(현범), 김수은(한나)' (1, 3화)과 '도준(민), 가빈(가희)' (2, 4화) 이 맡아 신선하고 친근감 있는 모습을 선보인다. 도준은 이미 SNS상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두근두근 마카롱>을 통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베테랑 배우 장광, 성병숙 등도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며 극의 재미를 더했다. 두 커플의 두근두근 알콩달콩한 이야기 총 4편은 12월 매주 토요일 KNOCK 페이스북 북 페이지(www.facebook.com/cgntv.knock)를 통해 공개된다.



Out 공감 댓글

<두근두근 마카롱> 첫 화 오픈 이후, 빠른 속도로 조회 수의 앞자리가 바뀌고 있다. 아직 <두근두근 마카롱>을 맛보지 못한 당신을 위해 이미 달콤함에 빠진 이들의 공감 댓글을 소개한다.

- <1화 작전명 : 상견례> 조회수 78,174회(2016.12.20 현재)
 - 나도 벌써부터 걱정이야. 크리스천 시트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반갑다.
 - 명심! 자집정예!(상견례에선 자식자랑, 집안자랑, 정치 종교 얘기, 예단 얘기 금물!)
 - ㅋㅋㅋㅋㅋ 첫 화부터 임팩트 있네.
 - 우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닐거야. 더하면 더했지.
 - 조만간 (펼쳐질) 우리의 모습.
 - 교회오빠도 재밌었는데 새로운 것 나왔다.
 - "북한에 교회를 다섯 개나 지으셨다면서요?", "그럼 장로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상견례에서 이런 말이! 대사 정말 웃겨.)
 - 다음 에피소드가 기대되네요. 짱꿀잼.

- <2화 HAPPY MIRACLE DAY> 조회수 99,536회(2016.12.20 현재)
 - 정말 재밌고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대박조짐 ^^
 - 안 믿는 남친 전도하기. 재밌게 봤습니다.
 - 여주인공이 미스코리아 출신 가빈이네. 예쁘시다. 도준 오빠도 최고!
 - 도준 님 연기 잘한다. 정말 훈남. 내용도 정말 공감돼요. 슬프게도.
 - 우리 모습이다. 힘내자!
 - 완전 재밌어요 ㅋㅋㅋㅋ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다

제3회 CGNTV 생명의 삶 QT 간증 수기 공모전



『제3회 CGNTV 생명의 삶 QT 간증 수기 공모전』이 지난 7, 8월 두 달간 진행됐다. 성도들의 큐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에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진솔한 간증들이 응모됐다. 박유진 성도(여, 40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임혜정(여, 40대), 박희준(여, 40대), 광상학 성도(남, 40대)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유진 성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근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후, 나와 남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 수상자 박유진 성도는 지난 8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공모전 소식은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CGNTV를 통해 보았다. 경황이 없는 때였지만, 그녀는 공모전 내용이 계속 눈에 밟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았다. 그녀는 결국 공모 마지막 날 간증을 썼다. 글을 쓰면서 그녀는 남편의 장례 직후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았다.

박 성도의 남편은 “팔을 자르면 잘랐지 절대 교회는 안 갈 것”이라고 했던 무신론자였다. 하지만 임종 직전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다. 암 투병 중에도 중국 선교에 꿈을 품고 목사 안수도 받았다. 남편은 떠났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세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잘 채워준다는 박 성도. 남편 장례 직후 그녀가 썼던 진솔한 고백을 나눈다.

우리 영혼을 창조주께 _ <최우수상 수상작> 박유진 성도

2007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마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였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이사갈 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평안했습니다. 결국 이삿날이 됐습니다. 이삿짐을 센터에 보관하고 얼마간 여관에라도 묵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기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집을 알아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상황이 막상한 말씀대로 돼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다시 한 번 시련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는 믿고 기도했고, 남편은 항암과 방사선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의사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하셨습니다. 남편 몸의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됐고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연단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중국 소수민족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암투병 중에도 올 1월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떼쓰며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를 준비한 아들이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럼 건강하게 회복시켜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 입술에선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지고 계속 찬양이 흘러 나왔습니다. 제 감정은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계속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

대로 불교인 집안에서 남편을 시작으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어머니까지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이 불신앙의 가정에 1호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실타래가 풀리니 감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아멘하며 저는 미쁘신 창조주께 이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지난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이 천국에 입성하던 순간 놀랍게도 제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남편을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천국입성 이틀 전에는 세 아이를 불러 불분명한 목소리로나마 축복 기도를 해주었고 하루 전에는 가족을 모두 모이라고 해 다 함께 손을 잡고 시편 23편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는 이 찬송을 다섯 번이나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시는 음성이었고 또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그의 마지막을 너무도 아름답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중국선교를 위해 모아두었던 비용은 필리핀의 어려운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비록 남편은 중국을 밟지 못했지만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 그가 새벽마다 기도 드렸던 것들은 한알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간다를 밝힐 불씨

등잔을 켜려면 심지를 찾아야 한다. 그곳에 불씨를 붙여야만 비로소 어둠을 밝힐 환한 불꽃이 선다. 우간다 김신환 선교사는 아프리카를 밝힐 불꽃 심지는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어느 선교지에나 적용될 선교 사역의 본질이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전쟁과 가난, 기근의 땅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 돼 있어 그가 더욱 강조하는 대목이다. 자칫 말씀 사역이 물질로 돕는 사역의 뒷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98년 파송돼, 우간다에서 20년 가까이 사역해왔다. 그동안 그는 도전적이지 않은 현지인들의 성향을 고려해 직접 우간다 곳곳을 찾아다니며 목회자들을 기르고 현지인들이 성경을 읽도록 힘써왔다. 이런 그의 우직한 행보는 지난 시간, 그 땅에 크고 작은 기적들을 낳았다.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의 불씨가 됐다.



우간다 서부 부웨이니 지역에서는 현재 5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기도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10여 년,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상처 입은 성도들이 직접 교회의 문을 닫고 못을 박아버린 곳이다. 호된 신앙의 진통을 겪었지만 최근 몇몇 사람들의 기도 운동이 불씨가 돼 다시금 소생의 기운이 솟고 있는 지역이다. 불씨가 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김신환 선교사의 제자들이다. 그에게 목회자 과정을 교육받았던 제자들이 김 선교사의 제안을 계기로 모임을 시작한 것이다.

- 1. 김신환, 이외숙 선교사 부부
- 2. 컴퓨터 수업 중
- 3. 강해설교 중
- 4. 교회 성도들
- 5. 신학 수업 중

말씀 교육의 힘은 김 선교사의 또 다른 사역 현장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다. 땀별아래 모여 그의 설교를 들던 현지인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후, 자력으로 교회를 건축한 일도 있었다. 3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지만, 한 성도가 거액을 쾌척하면서 그들은 한국교회의 도움 없이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까.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김 선교사가 늘 염두에 두는 기도다. 이것이 우간다를 밝힐 심지이자 본질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신학교육이 미진한 현지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우간다 곳곳을 찾아다닌다. 우간다는 정규 신학교 과정을 밟지 않은 목회자들이 개척한 교회가 많아 이 단 및 사이비 세력 등에 상당수 노출돼 있다. 이에 김 선교사는 “이곳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간다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렇게 교육받은 그의 제자 26명이 그의 소속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안수를 받은 전체 목회자 52명의 절반이었다.

그는 아프리카인들이 매일 말씀을 읽게 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쪽 복음을 가지고 고아원, 학교, 교도소 심지어 군부대까지 찾아가 매일 말씀을 읽도록 돕고 있다. 그의 아내인 이의숙 선교사도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이 사역을 펼치고 있다.



말씀 전파 사역에 전력하는 그에게 CGNTV는 잘 어울리는 동역자다. 그는 현지에서 만난 CGNTV PD와 눈물로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CGNTV 설립 초창기부터 방송을 보았다. 적극적인 평소 성품답게 동료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송을 찾던 중 CGNTV를 알게 됐다. 그는 “방송이 늘 신선해 감동했었다”며 “정갈하고 복음주의적인 말씀들을 듣게 돼 감사했다”고 했다. 또 “힘 있는 말씀들과 여러 선교지 소식들이 선교사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했다. 지난 8월 CGNTV 직원예배 강단에 서기도 했던 그는 “그렇게 뜨거운 직원예배는 처음 보았다”며 “가슴을 뜨겁게 하는 방송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싶었다”는 소감도 밝혔다.

그가 가르치는 신학 교육은 건물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대부분 들판이나 나무 그늘에서다. 후원받은 교과서를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물을 얻기 위한 비용이나 허가를 밟는 절차 대신 좀더 구애 없이 말씀을 전한다. 그가 ‘모바일 신학교’를 구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신학을 배우지 못해 설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의 선교 비전이다. 복음이 장벽 없이 퍼져가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CGNTV와 닮았다.

CGNTV 대표 이·취임예배

제4대 신임 대표 이용경 장로 취임

지난 12월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CGNTV 대표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전임 대표인 유재건 장로가 4년 간의 임기를 마감하고 제4대 신임 대표로 이용경 장로가 취임했다. CGNTV 전 직원을 비롯해 약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예배에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취임 대표들의 인사, 관계자들의 격려사, 축사 등이 진행됐다.



이재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CGNTV의 역할과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롭게 출발할 CGNTV의 사명을 강조했다. 유재건 전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헌신해준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CGNTV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CGNTV의 운영위원장인 정상건 장로는 격려사를 통해 “유재건 장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나이, 환경까지 외울 만큼 직원들을 사랑한 대표였다”고 전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이용경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저의 임무는 CGNTV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써나갈수록 돕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용경 대표는 버클리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Bell연구소 책임연구원, KT 대표이사를 역임한 통신전문가로서 미국 일리노이대학과 카이스트경영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문화체육방송통신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당교회 초청 미디어 아카데미

CGNTV가 청주 상당교회 초청 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청주상당교회는 CGNTV의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CGNTV 미디어 아카데미(7월5일~7일)에 참여했던 교회로, CGNTV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했다. CGNTV는 교회 측의 요청에 따라 <영상 제작 기초 : 기획과 구성>(10월 29일), <영상 제작 기초 : DSLR 동영상 촬영>(11월 5일), <제작된 영상 SNS 활용하기>(11월 12일) 등을 주제로 직접 청주를 방문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상당교회 방송팀은 물론 방송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 30여 명이 참석해 방송 사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CGNTV 후원 행사

정기후원행사, 드림온콘서트, 드림온골프대회

지난 가을 CGNTV 후원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2016 정기후원행사(10월 2일), 최경주 선수 초청 드림온골프대회(10월 10일), 드림온콘서트(11월 3일)가 그것. 각 행사들은 CGNTV의 미디어 선교사역의 가치를 공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들로 많은 후원의 손길들이 이어졌다.

2016년 정기후원행사에는 10월 2일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열렸으며 3천 5백여 명이 참여해 현재 총 후원자가 2만 8천여 명을 넘어섰다. 이날 후원행사에는 우간다 김정운 선교사의 이야기가 영상을 통해 소개되어 감동을 더했다. 김정운 선교사는 “CGNTV 사역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려요. 부족한 선교사들을 힘내게 하고, 밀어주니까 감사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라고 전했다. 후원금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드림온골프대회는 총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용인 골드CC에서 이뤄졌다. 스포츠를 매개로 한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최경주 선수를 중심으로 함께 교류하며 CGNTV 후원을 위한 뜻을 다졌다. 참석자들의 대회 참가비는 CGNTV 후원에 사용됐고, 대회 후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최경주 재단의 후원 및 드라이버 경매 등이 진행됐다.

드림온콘서트는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를 주제로 지난 11월 3일 서울 그랜드앰베서더 호텔에서 진행됐다. 총 26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은아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메시지를 전한 온누리교회 담임인 이재훈 목사는 어두운 세상에 복된 소식을 알리는, CGNTV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를 위해 한국을 찾은 선교사 스탠 토플, 미아 토플, 시슬 토플 가족과 제임스 린튼은 자신들의 선교사역과 CGNTV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CGNTV의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밖에 CGNTV 프로그램 진행자 강석우, 김영우 씨와 CGNTV 전 직원들의 특별 찬양 등이 이어지며 가을밤,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CGNTV 후원은 전화(02-796-2243), 홈페이지(www.cgntv.net)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KNOCK, 한국기독교언론대상 기독교문화부문 ‘우수상’ 수상

CGNTV KNOCK 미니휴먼다큐 시리즈가 제8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 기독교문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KNOCK는 웹과 모바일에 적합한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콘텐츠로 SNS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을 선보이며 젊은세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수상의 영광을 얻은 미니휴먼다큐 작품은 <잃은 양 찾기>, <테이킷이지>, <인포리를 부탁해>, <이태원 준섭이> 다. 각 작품들은 소외된 이웃들을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따뜻한 모습과 버스킹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한 청년의 진솔한 모습이 그려졌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 상암동 KBS미디어 심석홀에서 진행됐다.



CGNTV 삼공초대, 감신대서 개최

CGNTV의 핵심가치인 '삼공(공유, 공감, 공생)'을 나누고 CGNTV 대표 콘텐츠들을 소개하는 자리인 CGNTV '삼공초대'가 지난 11월 24일 저녁 6시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열렸다. 감신대 대학원생 97명이 참석한 이번 자리는 CGNTV 함태경 경영본부장의 강의, <KNOCK> 미니휴먼다큐 상영과 <KNOCK> 황지수 팀장과 함께 하는 토크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감신대 어현준 전도사는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생각해 보게 됐고, 미디어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KNOCK> 미니휴먼다큐를 통해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삼공초대'는 이후에도 교회, 학교, 기관 등을 찾아가 많은 이들과 CGNTV의 비전과 콘텐츠들을 나눌 계획이다.



2016 CGNTV 비전수련회

2016 CGNTV 비전수련회가 지난 11월 17일~19일(2박 3일) 그레이스힐 SCG 강화수련원에서 개최됐다. CGNTV 비전수련회는 매년 해외 7개 지사를 포함한 CGNTV 전 직원이 참석하는 자리로, 새로운 한해의 비전을 공유하고, 영성 강화 및 공동체 간 화합을 도모한다. 수련회는 올해도 CGNTV 전 직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를 강사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요 15:7)'는 주제로 진행됐다. 해외 지사 직원 및 관계자들 축복, 공동체 프로그램 및 국별 비전 발표, 풍성한 찬양과 기도, 성찬식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직원들은 "국별 비전을 듣고 서로의 생각과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구성원들이 단합할 수 있어 좋았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제3기 선교헌신자 파송

CGNTV는 지난 12월 12일 선교헌신자 파송식을 갖고 해외채널기획팀 민정환 PD를 CGNTV 인도네시아 지사 방송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는 오는 1월 11일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떠날 예정. 민 PD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선교지에 필요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복음 전파에 힘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훈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사가 말씀을 전하며, 일어나는 자에게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둘째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셋째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향후 사역의 길을 축복했다. 민정환 PD는 지난 10여 년 동안 CGNTV에 근무하며 <KNOCK>,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등 다양하고 앞선 기독교 콘텐츠를 기획·제작해왔다.



일본 CGNTV _ 오사카 러브소나타 성황

오사카 러브소나타가 '일어나라 오사카,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지난 11월 22일~23일 오사카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본 행사인 저녁 집회를 비롯해 '리더십 세미나', '가스펠 나이트', 'CEO포럼' 등이 일본 복음화의 염원을 담아 이틀 간 진행됐다. 본 집회는 총 3천여 명(일본인 2천 6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 박진아,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소프라노 김영미, 온누리워십콰이어, 테너 배재철 등 문화 예술인들이 무대를 빛냈다. 이재훈 목사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후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고, 결산 순서를 통해 총 73명이 영접, 264명이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미주 CGNTV _ 윤복희 권사 토크 콘서트

미주 CGNTV가 주관하는 윤복희 권사의 토크 콘서트 '나의 사랑, 나의 노래'가 지난 12월 10일 오후 7시 풀러턴의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미주 CGNTV 창립 11주년 및 송년 후회 감사의 밤 행사로 마련된 이번 자리는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복희 권사는 이날 콘서트에서 자신의 대표곡 '여러분'을 비롯해 가스펠, 뮤지컬 테마곡 등을 불러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간증들을 나눴다.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은 CGNTV를 통한 중남미 선교기금으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태국 CGNTV _ 웹툰 <홀리스토리> 제작

태국 CGNTV가 제작한 웹툰 <홀리스토리>가 페이스북(CGNTV THAI)을 통해 공개돼 현지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큐티 방송 <Living Life>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된 <홀리스토리>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호응에 힘입어 본격적인 시리즈 웹툰으로 제작됐다. 총 4편으로 1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2편 '왜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걸까?', 3편 '예수님은 누구신가', 4편 '홀리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선보였다. 각 시리즈는 재치 있는 스토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해외뉴스

대만 CGNTV _ 시청자 모니터단 활동 활발

대만 CGNTV와 본사 중문제작파트가 운영하는 시청자 모니터단이 한국,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중화권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를 파악해 중화권 프로그램 제작의 방향성을 잡는데 소중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지난 10월 6일에는 타이베이 제작센터에서 모니터단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다. 이들은 중화권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에 맞는 화면 배치, 플랫폼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만 CGNTV는 2017년 홈페이지 개편과 프로그램 제작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랍 CGNTV _ 제3회 MCC, 미디어 선교 전략 모색

제3회 MCC(Media Communicators Conference)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 4일간 두바이 엘림 선교관에서 진행됐다. '미디어 시대의 선교 전략과 네트워킹'을 모색하기 위해 CGNTV를 포함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총 15명의 미디어 선교 사역자들이 한데 모였다. 변상욱 CBS특별취재단장이 주강사로 나서 언론인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강의하고, 참석자들은 뉴미디어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들을 진행했다. 아랍 CGNTV는 지난 해 방송됐던 유럽 난민 다큐멘터리 제작현장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기술 및 뉴미디어 장비 등을 소개하고, 난민 다큐멘터리 후속작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CGNTV _ 자야TV와 업무협약

인도네시아 CGNTV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자야(Jaya)TV(대표 그레이스)'와 지난 12월 9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야TV는 2005년 설립된 파푸아 최초의 민간 방송으로 소외 지역인 파푸아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방송이다. 일반인들을 위한 방송이지만 매일 처음과 끝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CGNTV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가장 소외된 지역에 복음의 길을 열게 됐다. 그레이스 자야TV 대표도 "CGNTV와 함께 파푸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CGNTV는 오는 1월, 자야TV를 통해 예배 및 세미나, 어린이, 요리 프로그램 등을 매일 1시간씩 방송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CGNTV 운영위원 이호덕 장로

한 영혼을 위한 길에 축복을

인도네시아 CGNTV가 지난 11월 5일 한인후원행사인 드림온 콘서트를 가졌다.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인들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후원의 손길도 많았다. 이어 12월 9일에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자야TV'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외된 지역에 복음의 젓줄을 댄 뜻깊은 일이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CGNTV 운영위원인 이호덕 장로가 인도네시아 CGNTV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소감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CGNTV가 출범한지 어느덧 두 해가 지났습니다. TV라는 미디어가 무한 소식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만큼 인도네시아 CGNTV의 출현은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네시아를 품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두 해 동안 다방면으로 인도네시아 복음화의 길을 모색해 온 인도네시아 CGNTV는 현재 기대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중심으로 현지 기독교인들 및 선교사들, 그리고 현지인들까지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개최된 드림온 콘서트도 350여 명이 한데 어우러져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자야TV와 협력하게 된 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느리게 흐르는 땅 인도네시아에서 CGNTV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매체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된 소식을 보다 빠르게 전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야TV가 있는 파푸아는 석기시대와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 위치한 지형적 한계 때문에 문명과 교육의 발달이 더딘 곳입니다. 이에 세계 많은 선교단체들이 헌신했지만 많은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CGNTV가 세대와 지역, 문화의 차이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그들 곁으로 온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CGNTV가 자야TV와 손을 잡



게 된 것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인도네시아 CGNTV의 길에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CGNTV의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CGNTV가 더욱 더 인도네시아 소외된 지역들에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에 헌신하시는 인도네시아 CGNTV와 많은 한인 선교사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CGNTV 정규 프로그램별 시청 소감

정기개편 이후 더욱 알차고 풍성해진 CGNTV 프로그램들, 시청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한해를 돌아보며,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날카로운 비평으로 CGNTV를 성장케 한 모니터단의 생생한 시청소감을 만나봅시다.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매주 화 오전 11시 30분

- 탈북민을 호기심이나 우월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점이 참 좋습니다. 일상 카메라와 인터뷰가 잘 편집되어 감동이 배가됩니다. (한경주)

<김영우의 스위트사운드즈> 매주 금 저녁 10시 40분

- 다양한 출연자들과 좋은 음악, 김영우 씨의 진솔한 진행 덕분에 매주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박혜로)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매주 목 오전 11시 30분

- 크리스천이 겪는 어려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에 관해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효림)



<거룩한 바보들> 매주 금 오전 11시 30분

- 생각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저 존경스럽다

기 보다 '그럼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혜리)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매주 월,화 오전 11시

- 롤 모델들을 보며 도전을 받고 마음의 힐링도 얻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고 1인 아들에게도 링크를 복사해 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김관숙)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매주 월 오전 11시 30분

- 재미있는 예능을 보는 것 같아 아주 즐겁습니다. 흔히 보는 방송들과 달리 순종, 섬김, 축복과 같은 메시지들이 들려 줍니다. (이경주)



<나는야 주의 어린이> 매주 금 오후 5시 20분

- 찾아서 보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프로그램 속 다른 믿음의 친구들을 보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혜)



방송으로 맺어진 가족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회에서 탈북민 김은주 씨의 멘토로 출연했던 윤정희 사모가 방송 후 CGNTV 대표 앞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방송 후 그녀 주변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 따뜻한 변화들 때문이었다. 방송이 낳은 또 하나의 사랑이야기.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아 보낸 윤 사모의 편지를 나눈다.

CGNTV 대표님께,

살롬. 저는 행복한 엄마 윤정희입니다.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이하 '통일버스')> 1, 2회에서 출연자 김은주의 육아 멘토로 출연했다가 지금은 그녀와 엄마와 딸 사이가 된 사람입니다. 방송 덕분에 서로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지요.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없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통일버스>에선 저희의 이 사연을 다시 한 번 방송에 담아주셨습니다. 제작진 분들은 멀리 강릉까지 한 달음에 와 주셨고 담당 피디님께서 사비까지 털어 은주네와 저희를 위한 선물도 사다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는 1박 2일 동안 기쁘게 촬영했고, 두 주간 방송됐던 내용도(21회, 22회) 정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방송된 지 얼마 후 이 방송을 보셨다는 52세 한 시청자분이 CGNTV를 통해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분은 목소리도 떨리시고 다소 흥분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라는 말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분은 과거 입양을 꿈꾸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천을 못 하고 계셨는데 <통일버스>를 통해 은주와 제가 엄마와 딸이 되는 순간을 보고 결심을 굳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저의 친자매가 일하고 있는 강릉 아동 임시 위탁 센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분은 가족들과 함께 내려와 4살, 1살 된 어린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아이들을 만나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족의 아이들이라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켜보면서 CGNTV를 이끄시는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CGNTV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의 감동과 기쁨은 없었을 텐데...' 싶었기 때문입니다. 방송 선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와 닿았고, 이런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가족이 탄생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을 알리는 방송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GNTV는 방송을 통해 주님을 알리고,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삶으로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릉에서 윤정희 드림.

CGN 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1:10 미니콘서트 씬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7: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믿음(영어자막) 08:5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교회)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8:50 [말씀] 라준석 목사(시드니새순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4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10: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하용조 목사의 느헤미야강해 (영어자막) 07: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5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0:2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6:00 생명의 삶 06: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07: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40 하용조 목사의 십계명(영어자막) 08: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1:0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거룩한 바보들	05:00 생방송 새벽기도회 05:40 CGN 웰드리프트 06:00 생명의 삶 07:0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0: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1:30 선교한국 2016 <그런즉 우리도> 세미나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6:50 나침반 바이블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교회) 13: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4:50 [말씀] 박성민 목사(한국대학생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거룩한 바보들	12:30 [말씀]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50 [말씀] 권혁민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목회자 컨퍼런스: 죄와 은혜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4:1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 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거룩한 바보들 14:50 [말씀]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미션 로드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7:40 새벽나라 17:5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뉴욕IN2) 13: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칩 인그램의 참된 평안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7:50 새벽나라 18:00 미션 로드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5:50 종교개혁 500주년 기획 <오직 믿음, 오직 기도> 16:4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17:20 [말씀]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18:2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일본 아마토 갈보리 채플예배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20:10 이연길 목사의 내러티브로 성경읽기 21:00 [말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23: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다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9:30 [말씀]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 20:10 이덕주 교수의 복음으로 개혁을 외친 선각자 21:00 하용조 목사의 순종(영어자막)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거룩한 바보들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크레이그 그로쉴의 나쁜 생각과 싸우는 법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CGN 북세미나 책걸음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23:50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9:30 [말씀] 라준석 목사(시드니새순교회) 20:10 종교개혁 500주년 기획 <오직 믿음, 오직 기도> 21:00 [말씀] 권혁민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임직자 스쿨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맥스 루케이도의 100인의 행복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느헤미야강해 (영어자막) 19:00 2016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주제강의 20:0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20: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20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23:0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00:20 생명의 삶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고현준,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득환,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중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영,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준희, 선우석, 성필호,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영섭, 유익준, 유이상, 유주희, 윤덕순,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밖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순애, 장정심, 정용주,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지성한,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하주현,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해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2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CS** **영로비전** ch.32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D'LIVE**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푸른방송**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o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Gtv**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SNS

- CGNTV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CGNTV Korea : www.facebook.com/cgntv
 - KNOCK(노크) : www.facebook.com/cgntv.knock

※ 기타 시청문의 02-796-9800

내가 바라고 원하는 CGNTV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합니다. 마음속에 늘 그분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선생은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내가 진정 원하는 우리나라는…”으로 시작하는 주옥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4년간 기쁘게 사역했던 사랑하는 CGNTV를 떠나면서 김구 선생의 그 마음 그 말씀을 떠올리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CGNTV”를 적어 봤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CGNTV는

- 첫째,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방송
- 둘째,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방송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는 방송
- 셋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방송이 아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방송
- 넷째, 아픔과 절망의 얘기들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을 들려주는 방송
- 다섯째,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방송이 아니라,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방송

하나님이 세워주신 CGNTV, 이후에도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CGNTV 3대 대표 유재건 장로